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나무처럼(46x69) • 장천 김성태

2015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나누어 가질 때 인간이 된다
처음 마음으로	10	수행에는 거짓이 없다
따뜻한 이야기	16	난 새댁이 참 부럽네요
시심청심	19	길상사와 '시 한 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재 안내	20	김영한(金英韓) / 1916~1999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2	인간의 길
숨어서 피는 꽃	24	어느 시각장애인의 사모곡
아름다운 마무리	28	11월 결연대상자 – 박금례 어르신
옛날의 금잔디	30	어른이 되기 위해 떠났던 여행
참교육 이야기	34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내 마음속 풍경	38	남자가 말랑말랑해질 때
사색의 뜰	41	뒷광대 와 앞광대
실천하며 삽시다	44	먹지마 건강법, 단계별로 실천하면 쉽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4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염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나누어 가질 때 인간이 된다

글 • 법 정(法 頂)

이따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장의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생과 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주검으로 차에 실려 어디론지 묻히러 가고 있는 그도, 살았을 때는 관광버스를 타고 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장의차와 관광차가 휴게소에 함께 가지런히 쉬고 있을 때에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로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 내면에서도 생과 사가 그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인간의 길〉에서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했다.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로 그와 같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스러운 일도 적고 생에 대한 미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도(無道)할 것인가. 죽음이 없다면 생 또한 없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들의 생을 조명해주기 때문에 보다 빛나고 값진 생을 가지려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살인, 강도, 대량 학살, 고문, 폭행 등 비인간적인 범죄가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늘어만 가고 있는 현대사회, 때로는 우리들의 의식이 마비될 정도로 그 도가 심각하다. 1999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인간의 끝이 아닌가 싶도록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모른 체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따뜻한 손길을 펴는 사례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인간이구나, 그래도 인간은 건재하구나 하고 잃었던 인간의 긍지를 되찾게 된다.

이제는 고전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들은 서양의 물질편중의 과학 문명과 그 기반 위에 선 그릇된 자본주의, 그리고 서구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계급의식과 대립 사상 등으로 인해 인간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은 계급의식이나 대립 항쟁의 양상은 별로 없었다. 관용과 화해로써 인간관계가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그렇다 정말 새삼스럽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원초적인 물음 앞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이 곧 우리 문화의 본질이고, 인간만이 우리 공동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간다.

그러면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이 곧 관계

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관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을 심화시킨다.

흔히 베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 우주의 선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가 가지고 나온 사람 있던가? 또한 살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해서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찌 물건만이겠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어 가짐이다. 그러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그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다.

마지못해 싫은 생각으로 준다면 그에게는 그 싫은 마음이 곧 그 갚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나눌 바에야 즐거운 마음으로 선뜻 나누어야 한다. 기쁨이 없는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봉사받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한걸음 나아가 신문이나 방송에 이름 석 자 내려는 생각도 없고, 어떤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덕행으로 여기는 생각조차 없이 무심히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뒤에서 서서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실 것이다. 마치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무심히 하는 일이 우리를 눈뜨게 한다. 봄바람이 메마른 가지에 잠든 움을 티우듯이.

〈금강경〉에서,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應無所主而生其心)."고 한 말이나, "모든 생각의 자취에서 벗어난 사람을 부처라고 할 수 있다(離一切相 卽名諸佛)"는 말은 바로 무심히 행하는 일을 기리는 가르침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곧 포만하여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우리들 마음속 깊이 깃든 사랑의 신비는 줄 때에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깃든 가장 아름답고 어진 인간의 뜰을 가꾸는 일이 된다.

사람의 심성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게 고인다. 퍼내지 않으면 흐리고 상한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주는 일 그 자체가 받는 일이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줄 뿐이다. 사람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우리들 안에 잠들어있는 인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삼국유사〉 권5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 제40대 애장왕 시절, 정수(正受)라는 스님이 황룡사에서 머물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볼일이 있어 삼랑사에 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오는데 눈까지 내렸다. 천엄사 앞을 지나오려는데 거기 한 여자 거지가 맨땅 위에 해산을 하여 얼어 죽을 판이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 가엾이 여겨 그 여인을 온몸으로 안아주었다. 한참을 지나니 여인이 소생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옷을 벗어 그 어미와 아기를 덮어주고 벌거벗은 채 황룡사에 달려와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새웠다……."

추위를 나누어 가지는 일을 통해서 남도 살리고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도 함께 불러일으킨 것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하나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수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인 유대로 보아야만 자타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나누어 가짐을 무연대비(無緣大悲)라고 한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거듭 인간이 되어간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의 정신적인 자서전인 〈희랍인에게 이 말을〉에서 나누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기도문으로써 이렇게 말한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의 기쁨을 즐기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천국으로 들여보내든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어 고통 받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저는 지옥으로 내려가 저주받은 그들을 위로할 질서를 세우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저는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나이다."

옛날 어떤 선사는 항상 '나무 지옥대보살(南無 地獄大菩薩)'을 불렀다고 한다. 몸소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발원이다. 이웃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비원(悲願)에서였으리라.

현대인들은 대부분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뜰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뜰은 곧 덕이다. 덕은 자기 희생으로 쌓인다. 덕행은 영혼의 아름다움, 인간을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타인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의 일에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닫힌 내'가 '활짝 열린 나'로 눈을 뜰 수 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사람 속에서 인간을 캐낼 수 있고,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

한 개인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개인보다 더 큰 존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인간 정신이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끈다.

개인은 한정된 존재다. 특정한 나라에 살면서 특수한 문화, 독특한 사회, 각기 다른 종교에 소속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국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미미하고 덧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름에 따라 공동체의 사업인 나누어 가지는 일에 참가하면 인간으로서 불멸의 본질이 구현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로따로 보면 개인은 한 사람씩 죽어가지만, 뜻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에는 인간이 되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본질인 그 인간을 찾아내고 드러내야 한다. 진정한 인간의 집합만이 이 지구상에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1983

– 산방한담 중에서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국악 음악가 김 영 동

11월 29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법정 스님 입적 5주기를 맞아 마지막 일요일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하셨던
어른을 모셔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11월에는 마지막 순서로 한국 국악음악 및 불교&명상음악의 대가
김영동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님을 모십니다.

김영동 님은 1970년대부터 한국적인 드라마, 연극음악, 영화음악, 불교음악을
개척하며 대중들과 음악적 교감을 꾸준히 넓혀오셨으며, 〈어디로 갈꺼나〉
〈삼포 가는 길〉〈한네의 이별〉〈조각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혁신적인 음악의 창조자라고 호평을 받고 계신 음악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행에는 거짓이 없다

글 • 덕 운(德 耘)

많은 사람들이 수행(修行)을 하기 위해서 불문(佛門)에 들어오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참되게 수행(修行)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되, 뭔가를 바라고 하는 수행은 잘못되기 십습니다. 수행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만큼 진보가 있는 것이고, 도(道)의 문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햇볕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상(形相)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形相)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형상(形相)이 짧으면 그림자도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님의 자비는 수행하는 중생들의 신심어린 정성과 함께하지만, 중생들은 수행하면서 마음에 소득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 분들 중에도 혹 점을 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족집게라는 소문이 들리면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은 그들도 알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점쟁이에게 맡기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헛된 것에 의지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법(正法)대로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바라는 소득심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邪道)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맑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空)의 뜻을 바로 알아서 마음을 비우고 참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장은 저절로 맑아지고 수행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가(佛家)에 전해 내려오는 무착 문희 선사와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통해 참 수행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착 스님은 북인도 사람으로서, 출가하여 문수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한번 친견해 보겠다는 원(願)을 세우고 항주에서부터 오대산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 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의 절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오대산 금강굴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무엇 하러 이 깊은 산중에 있는가?"

"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과연 친견할 수 있을까?"

말끝에 노인은 그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순 생짜로군."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는 소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착 스님은 이 노인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뒤를 따라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금색이 휘황찬란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균제야." 노인이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뛰어나와 소를 받아 매었습니다. 잠시 뒤에 차(茶)가 나왔는데 다완(茶椀)이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차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향기로운 차가 있다니.'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에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착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앉았으니,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서는 불법(佛法)을 어떻기 주지(住持)하는가?"

"말법 비구가 계율을 겨우 지켜 유지합니다."

"대중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혹 삼백 명도 되고, 오백 명도 됩니다."

무착 스님은 노인의 질문이 왠지 싱거운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합니까?"

"범부와 성현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여기의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니라."

대중의 수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니…….

무착 스님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럭저럭 날은 저물어 무착 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염착(染着)이 있으면 잘 수 없다."

마음에 번민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쉬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착 스님은 "저는 별로 염착(染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계행(戒行)을 지키는가?"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닦아도 닦음이 없고, 지켜도 지킴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애써 지켜야 하는 단계에 있으니 염착(染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자인 균제를 시켜서 무착 스님을 배웅케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절 이름을 물으니 반야사(般若寺)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착 스님은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한 노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여, 내가 대중의 수효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덕이여."

"예."

"그 수효가 얼마인가?"

무착 스님은 더욱 더 그 뜻을 알 수 없어 법문(法門)을 청했습니다.

"동자여, 나를 위해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균제 동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게송을 하나 읊었습니다.

莫妄想 好參禪(막망상 호참선) 하라.
不知終日 爲誰忙(부지종일 위수망) 가.
若知忙中 眞消息(약지망중 진소식) 이면,
一孕紅蓮 生沸湯(일잉홍련 생비탕) 이리.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참선하라.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쁠건가.
바쁜 중에 참 소식을 깨닫는다면
한 송이 연꽃이 끓는 물속에서 피어나리.

이 게송을 듣는 순간 무착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보이던 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허허벌판뿐이었습니다.

무착 스님은 오대산에서 돌아와

불철주야 용맹정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대도인(大道人)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스님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공양주(供養主)를 자청했습니다.

하루는 가마솥에다가 죽을 끓이는데 갑자기 솥에서 상서로운 광명이 나타나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전에 꿈에 그리던 문수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은 절을 하면서 경탄을 하였고, 예전의 무착 스님 같으면 대중들과 같이 찬탄하였겠지만 무착 스님은 오히려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후려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문수는 네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이니라."

그러자 죽의 방울방울로부터 천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나 허공을 가득 채웠고, 무착 스님은 닥치는 대로 주걱으로 후려쳤습니다.

얼마나 후련한 장면입니까!

옛 조사스님들은 "부처가 간 길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당당한 대 자유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은 게송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爾三大劫修行(이삼대겁수행) 컨만,
還被老僧嫌疑(환피노승혐의) 로다.
苦瓠連根苦(고호연근고) 이고,
甘菰徹帶甘(감고철대감) 이로구나.

내가 삼대겁을 수행하였지만,
오늘 노승의 혐의를 입고 돌아간다.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이 게송은 문수보살이 무착 스님의 깨달은 경지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착 스님은 진성(眞性)을 철저히 깨달아 도(道)와 더불어 상응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이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삿된 것임을 알고 허공 속의 문수보살을 주걱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수행자가 도(道)를 완전히 체득하게 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아무런 조작도 없고, 걸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하대지와 한 뿌리를 이루고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 그대로 천진의 세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티끌 수와 같이 많은 세계가 그대로 진여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참 마음자리를 체득하여 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수행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성불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불하기 위한 처절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도(道)를 통해 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만이 삶의 지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영가 현각 스님은 〈증도가〉에서 자타 없는 불이(不二)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君不見(군불견)가
絕學無爲閑道人(절학무위한도인)은
不除妄想不求眞(부제망상불구진) 이라.
無明實性(무명실성)이 卽佛性(즉불성)이요.
幻化空身(환화공신)이 卽法身(즉법신)이로다.
法身覺了(법신각료)함에 無一物(무일물)이니,
本源自性(본원자성)이 天眞佛(천진불)이로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하릴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나니.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허깨비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로다.

여러분들도 불도를 속히 성취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아한 날씨의 좋은 가을입니다.

일기일회(一期一會)!

지금 이 순간은 내 일생에 단 한번뿐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한 일상(日常)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십시오.

– 불기 2559년 9월 초하루 법문
(2015년 10월 12일)

난 새댁이 참 부럽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아내는 우연히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보석 반지를 보게 됩니다. 반지를 본 아내는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만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를 훌쩍 넘기고 나서야 이웃집 아주머니는 반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훔쳐갔다고 확신한 아주머니는 아내를 찾아와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게 되고, 아주머니는 더 화가 나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식구랑 새댁뿐인데도, 거짓말을 계속할 거야?"

아내가 끝까지 훔치지 않았다고 우기자 아주머니는 결국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람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남편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세요."

남편의 강직하고 단호한 한마디에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물론 이웃집 아주머니도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자, 전날 밤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한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저를 벌해 주세요."

남편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게 된 이웃집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의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내의 손을 지긋이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새댁이 참 부럽네요."

부부간의 큰 사랑은 허물을 '탓' 하기 전에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배우자의 잘못이 보이나요?
쉽진 않겠지만, 한 번쯤 큰 사랑으로 덮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달의 명언

남의 조그만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 잘못을 생각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가히 덕을 기르며, 또한 해로움을 멀리할 것이다.

– 채근담 –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무연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기부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채워진 저금통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종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 – 013 – 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길상사와 '시 한 줄'

글 ● 장승기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한성대역에서 내려 6번 출구로 나와 삼각산 방향으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의 비둘기길을 따라 걷는다.

한눈팔며 걸어도 20여 분 가는 도중에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집터를 밟고 지나 고갯마루에 이르면 그 사연 많은 절 길상사가 나온다.

1997년 길상화 보살이 시가 1000억원에 달하는 대원각 땅을 법정(法頂)에게 시주했을 때 누군가 "아깝지 않으냐?"고 묻자 "그 돈은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했다는 그녀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시인 백석(白石)의 평생 연인이었다고.

이젠 시인도 연인도 이 절을 지은 법정도 미련없이 떠나버리고 없는 경내에는 수령 270년의 느티나무가 절을 지키며 속절없이 만드는 무심한 바람결에 간간이 우는 풍경소리뿐 고개를 들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편한 오솔길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다.

기쁨도 슬픔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표정의 무소유랄까
아름다운 침묵 텅빈 충만이 고요히 흐르는 도심 속 한적한 공간에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대신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내려놓고 잠시 호젓해 하는 사람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잠길로 내려선다.

*** 장승기(시인)** : 「시사사」로 등단, 시집「아내의 잠, 심훈 시비건립추진위원장, 동작문인협회 명예회장

김영한(金英韓) / 1916~1999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되는 법석에서 김영한은 수천 대중 앞에서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 저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다면 저기 보이는 팔각정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간절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울려 나오는 그녀의 음성에는 곡절 많은 그녀 인생의 슬픔을 넘어선 위대한 비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자리한 그 아름다운 법석에서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 벌과 '길상화(吉祥華)'라는 아름다운 불명(佛名)을 받습니다.

7천여 평의 터와 전각 모두를 보시한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 이곳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어 고뇌의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상화(吉祥華)' 보살이 된 그녀는 '나 죽거든 눈 오는 날 내 머물던 처소 뒤뜰에 뿌려 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삶을 마감이라도 하듯 절에 와서 참배하고 길상헌에서 마지막 밤을 묵고 1999년 11월 14일 생애의 외로운 기다림과 육신의 옷을 훌훌 벗어버립니다.

다비를 치른 유골은 49재 후 유언대로 첫눈이 길상사 도량을 순백으로 장엄하던 날, 길상헌 뒤쪽 언덕바지에 뿌려졌으며 2년 후 무주상보시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공덕비를 세우고, 매년 음력 10월 7일 기일에는 정성스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불일장학금 정신에서 시작되어 창립 초부터 해오던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의 명칭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금」으로 바꿔 매년 장학생들에게 〈무소유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상화 보살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동량들을 키워달라며 KAIST에도 큰 후원을 하였고, 창작과 비평사에 기금을 쾌척하여 '백석문학상'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공덕주 김영한(金英韓)은 일제치하, 민족사의 암흑기에 태어나 성장하여 16세의 나이에 금하 하규일의 문하에서 진향이란 이름을 받아 기생으로 입문하였지만, 생의 끝에는 길상화(吉祥華)라는 이름으로, 질곡의 한 생애를 살았지만 평생을 모은 재산을 우리 사회로 환원하고, 7,000평의 대지와 건물을 아낌없이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놓았던 여인!

그 맑고 고결한 영혼은 영원히 빛바래지 않고 영롱한 진주처럼 고귀하게 남을 것입니다.

공덕주 길상화(吉祥華)보살 기재

11월 18일(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김 길상화보살님의 기재가 오는 11월 18일(음력 10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지장전에서 마련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실천하신 길상화 보살님의 뜻을 기리며 함께 길상스런 도량으로 가꿔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길

마르틴 부버 지음

마르틴 부버가 하시디즘(유태교 신비주의)에 따른 〈인간의 길〉에서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 글을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치지 말고, 나직한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을 향해 소리내어 읽어보라.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얼마쯤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런 물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이 참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면, 기계적인 무표정한 인간으로 굳어지기 쉽고, 동물적인 속성만 덕지덕지 쌓여 가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게 된다.

우리가 같은 생물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보라.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와 같은 물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리게 될 것이다.

– 오두막 편지 중에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전 생애와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하면서 "현존하는 보기 드문 현인(賢人)"이라 불렀다는 마르틴 부버(1878~1965·오스트리아 출신 종교철학자). 그는 시대의 위기를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워 돌파하려 한 마르크스주의나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한 실존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걸었다. 그가 꿈꾼 '나와 너'의 대화 유토피아는 '개인과 집단 어디에도 환원할 수 없는, 그 둘의 절충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부버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빈, 취리히, 베를린 등지의 대학에서 철학과 미학을 배웠다.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종교철학 및 윤리학을 강의했다.

나치가 집권한 후 박해를 피해 여러 나라에서 망명생활을 보내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철학 교수로 재직했다.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지명된 바 있는 그는 하시디즘(18세기 동유럽의 폴란드에서 생겨난 유대교의 경건 주의적 신비 운동)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세계적인 신비 운동으로 바꾸어놓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로젠츠바이그와 함께 구약성서를 현대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나와 너』,『인간의 길』,『인간과 인간 사이』등이 있다. 특히『나와 너』는 실존주의 철학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어느 시각장애인의 사모곡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이런 전화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을 도와드려야 하나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언제, 몇 시에 자원 활동가와 만나야 하는지,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야 그 일에 적합한 자원 활동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원 활동가가 연결되면 직접 전화를 할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부름의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었다. 다행스럽게 주부자원활동가가 그 일을 하겠다고 쾌히 승낙하여 시각장애인 여인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다. 후두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일이라고 했다. 자원 활동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으로 가는 동안 시각장애 여인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각장애 자식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한이 되었을 어머니에게 온갖 모진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한을 남겼으니 어떻게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며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자라는 동안 어머니께 불효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엄마! 엄마도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소리만 들리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무엇이 보인다고 해?" 선천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물어본 말이었다.

어린이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일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이는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세상은 너무 밝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몇 날 몇 밤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통곡을 했다. 그 날부터, 엄마에게 속삭이듯 말하던 부드러운 음성은 험악하고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왜 낳았어, 왜 낳았느냐고, 이게 사는 거야?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죽여"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고, 자신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같이 뜨거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몸부림쳤다. 그렇게 온갖 험한 말들이 어머니에게 쏟아졌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가족들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혀를 차며 안쓰러워하고 달래보려고도 했지만, 막무가내로 몸부림치는 아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내하며 아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절대로 잠재울 수 없을 것만 같던 원망과 울분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비로소 어머니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고도 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맹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부드러운 설득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맹학교를 방문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

겠다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를 설득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과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손을 잡아 주었다. 손이 따뜻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날이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맹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맹학교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점 6개를 모아 만들어진 점자를 손끝으로 더듬어 글씨를 읽어야 하는 일도 잘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겨운 일뿐이었다. 오직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한 번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느껴졌다. 세상을 대신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주셨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맹학교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고 안마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었다. 마침내 독립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더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미안함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철이 없어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뼈저리게 뉘우쳐졌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 깨달음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다. 어찌하나……. 어머니는 이미 너무 지치고 쇠약해져 있었다.

딸자식의 고통과 절망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한 많은 어머니의 삶은 육신까지 넘어지게 하였다.

후두암 수술로 목소리까지 상실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음성을 더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시각장애 여인은 어머니의 휠체어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작은 움직임까지 손끝으로 느껴가며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폈다. 어머니는 시각장애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손짓을 볼 수 없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의 손등 위로 여인의 회한의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절망 그리고 뉘우침의 눈물이었다.

어찌하나!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는데…….

그동안 가슴 아프게 했던 일 모두 용서받으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만만한 상대였다. 어머니는 어떤 부당한 요구도 묵묵히 들어주셨다. 화풀이의 대상이었고, 슬픔도, 원망도 어머니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 슈퍼우먼이기를 바랐다.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가 되고 말았다. 어머니!

2015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맑고 향기롭게」는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려 합니다. 올해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자비의 손을 마주잡고 연말 김장 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 12월 2일(수) – 천막 설치, 재료 및 양념 준비
  12월 3일(목) – 배춧속 넣기, 포장, 전달, 정리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후원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11월 결연대상자 – 박금례 어르신

서울 성북구에 살고 계시는 박금례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아닌 올해 중학교 3학년 손녀 김다혜 학생입니다. 다혜가 태어나서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카드빚을 갚지 못한 어머니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혜 아버지도 엄마를 꼭 찾아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지만 15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16세가 되도록 엄마, 아빠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다혜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가는 건강하고 성실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혜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박금례 어르신은 24세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50여 년 전이다 보니 휴대전화나 CCTV와 같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시골이다 보니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큰 사고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오면서 다리가 붓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하여 사고 후 13년 만에 다리 수술을 받았지만,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지 3~4년 후부터 시력이 나빠지고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상태임을 직감한 약사의 권유로 찾아간 병원에서 간경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금례 어르신은 평소에 술, 담배를 입에 대 본 적도 없었기에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간경화가 악화하지 않도록 식습관과 생활을 관리했지만 26년 전 남편께서 돌아가시자 급속도로 악화하여 다혜를 맡아 키우게 되었을 때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간경화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지만 현재 어르신께서는 복수가 차오르는 가장 위험한 증상입니다. 복수가 찰 때마다 병원에 가서 빼내 주지 않으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길 수차례이고, 팔꿈치, 무릎 등 타박상을 입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복수가 차는 정도를 예측할 수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을 빼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두 번을 빼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식조차 어르신의 체력저하와 합병증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혜의 장래입니다. "일흔 일곱이나 먹었으니 언제 떠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혜 때문에 안돼요. 다혜가 스무 살 될 때까지는 절대 못 죽어요. 밤에 앓는 소리를 내면 걱정하니까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잠들면 앓는 소리를 내서 다혜 한테 미안해요. 잘 자야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텐데." 다혜는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파 주무시지 못하거나 복수로 인해 답답해하시는 소리를 내면 자지 않고 할머니께서 잠드실 때까지 다리를 주물러드리는 마음 착한 손녀입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박금례 어르신의 생활비와 병원비, 다혜의 학업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1년 치 생활비를 모금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마무리 사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희망해'에서 희망모금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떠났던 여행

글 • 윤언덕(작가)

그해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른 후였다. 우리는 고교졸업과 대학입시 시험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유달리 감성이 뛰어났던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나는 무작정 완행열차를 타고 동해바다로 떠나기로 했다. 당시 유행했던 송창식의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시험을 평소 실력에 비해 잘 치지 못했다고 생각들 하고 있었으므로 시험결과 발표는 두려웠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버티고 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무작정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은 아마도 입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과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 있는 부전역에서 울산, 포항으로 그래서 종국으로는 강릉까지 가서 신화처럼 숨 쉬는 고래를 만나자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었다.

철없는 초급청년 세 명은 간단한 배낭에 옷가지 몇 점과 만 원짜리 지폐 서너 장을 쥔 채 열차에 몸을 맡겼다. 여행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기실, 학교에서 한 수학여행을 간 것 외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처지들이었다. 완행열차인 비둘기호가 부산 시내와 해운대를 지나 현재 기장군 지역인 좌천역이라는 바닷가 시골 역에 도착했을 즈음이었다.

승객을 모두 태웠음에도 열차는 출발하지 않고 계속 멈춰있었다. 열차가 고장 났다든지, 다른 기차를 보내기 위해 잠시 멈춘다는 식의 차내 방송 또한 없었다. 그때 친구들과 내가 바라본 차창 밖 플랫폼에는 열차 차장과 승객 한 명이 승강이가 벌이고 있었다. 열차에서부터 강제로 하차 된 승객은 10대 후반 정도의 뚱뚱하고 키가 작은 청년으로 보였는데 짧은 스포츠형 머리와 허름한 점퍼를 입은 채 보퉁이를 하나 든 상태로 선한 눈매를 갖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청년은 무임승차를 했고 차장은 빈 좌석이 많은 열차임에도 눈감아 주지 않았을까? 차창 밖 광경을 구경하던 우리는 궁금증 속에 그들을 주시했다. 강제로 하차 된 청년은 다시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는 애절하고 간절하기 짝이 없는 눈빛을 차장에게 보내며 계속 승차를 시도 중이었다.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연이은 열차탑승 시도가 저지되자 청년은 차장에게 항의라도 하듯 입은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앗! 이럴 수가……. 무료하게 열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승객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다. 점퍼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스웨터를 벗고 상의 속옷까지 벗으니 나신이 되었는데 아주 큼직한 젖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어서 차장이 저지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바지와 팬티까지 벗고 전라(全裸)가 되었는데 그 청년은 여자였다. 당황한 차장은 무전기로 역무원들을 불러 담요로 여자를 감싼 채 역 구내로 강제로 데리고 갔고 잠시 후 열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발했다.

친구 둘과 나 사이에는 몇 분 동안 계속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무엇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당시 우리는 열아홉에서 스무 살로 넘어가는 애송이의 나이였지만 나름의 소설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이가 20세 전후이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발달장애 또

는 정신지체 상태일 것이다. 아마도 보호된 시설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숱한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그곳을 무작정 탈출하여 자유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 무임승차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다시피 곧 열차 승무원에게 적발되었고 그 상태는 그녀에게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녀는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지만, 예전의 지옥과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고 그것은 성(性)일 것이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오늘 저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지…….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는 험난한 세상은 참으로 무섭구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인생에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요즘의 관점에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될 문제겠지만, 당시 우리는 인간이 지닌 배타적인 속성을 단적으로 목격했다.

그해 겨울, 강릉에 도착한 애송이 셋은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신화처럼 숨 쉬는 고래를 만나지 못했다. 세상을 향해 다가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 첫째부터가 돌아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살이는 험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속적인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날이기도 했다. 엄동설한의 겨울날, 무작정 옷을 벗어젖히던 그 소녀가 만난 험한 세상을 우리도 나아가야 하리라는 것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철부지 19살의 우리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각자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했고 서로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세상의 시정(市井)일이 항상 그러하듯, 꽃답고 아름답다는 것은 한 번 그늘지고 시들기 시작하면 절정일 때만큼 더 처참하고 황폐하기 마련이다.

이후 함께 여행을 갔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다른 나라로 이민하였고, 다른 한 명은 중년이 시작될 즈음에 지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그 여행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살아가다 보면 오랜 친구 간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의 차이나 감정의 대립으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그리워할 수 있는 사이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그것을 꽃다운 시절이라든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긴 여행이라면 그 굽이에서 우리는 숱하게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 중 어떤 경우는 단 한 번의 스쳐 지나가므로 끝나는 이가 있었고, 만나긴 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기억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세월의 길목에서 쓰라림과 외로움을 함께 나눈 지난날의 벗들, 그 어떤 시간의 파괴력으로부터 살아남아 가끔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시절이다.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화장품 강좌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1. 천연 헤나 & 하수오 샴푸
2. 세라마이드 로션
3. 한방 상백피 에센스
4. 한방 비누 & 녹차스킨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맑고 향기롭게 소모임방)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해 놓았다. 일본 정부는 각 출판사가 만드는 공민·지리·역사 등 사회과 3과목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 지침'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왜 일본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일까?"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 영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사실화된다'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나라가 많아진 것도 그렇다. 독도도 이렇게 계속 우기며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화 시켜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결국 국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OECD 34개국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정도다.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하게 국정만 쓰는 곳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하나뿐)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국정제와 검인정제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1종 교과서라고도 하는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서'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뒤 발행한 교과서'다. 말썽이 일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가 검인정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거친 8종의 국사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 쓰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 제도를 바꿔 국정 교과서로 통합하겠다고 해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파란만장하다. 교과서는 1895년에 처음 발행됐다. 일제강점기에서조차 유지됐던 검인정제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 이듬해인 1973년에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의 정당화를 위해 1974년 2월부터는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 교과서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화된 국사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다시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 교과서의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자란 뜻이다.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가 쓰는데 정권의 뜻에 따라 만들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물론 국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집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친정부성향의 학자들을 동원해 정권의 시각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

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로 배운다면? 그래서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교실에서부터 역사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족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느냐.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데 왜 교원단체 학계, 교육계, 종교계에까지 국정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설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했다.", "일본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철도를 이용해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고 기술해 놓았다. 어떤 느낌이 들까? 마치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일본국사교과서 같지 않은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는 짧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다룬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까지 빠져 있을 정도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던 교학사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장덕수, 이종린 등은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 서술 부분에 담겨 있었다. 특히, 친일파로 꼽히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에 대해서는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꼭지를 통해 항일 운동을 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유신의 배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기집권 야욕보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기도 했다. '5·16 혁명공약'을 소개하면서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마지막 6번째 공약을 빼기도 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대규모의 시위"로 표현,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며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등 오류만 모두 453건에 달했다.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까? 정부가 학교에 채택을 권유하다 실패했던 교학사 교과서로 우리 역사를 배우면 친일을 미화하고 10월 유신이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대한민국 건국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15가 건국절이 되면 단군조선은 어느 나라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은 누구의 나라인가?

멀쩡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2세 일본 국민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기록하도록 지시한 일본 정부를 보면 이성을 잃었다는 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할까? 역사교과서가 이념 주입, 선전과 선동, 극단적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을 추동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다. 피교육자에게 정권에 입맛에 맞는 하나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다.

남자가 말랑말랑해질 때

글 • 이경숙(수필가)

왜 나를 떼놓고 가려 하냐고 물었다. 난데없다. 무슨 말인가? 거 참 이상도 하네. 그런데 시장에 가는 내내 등허리가 따갑다. 섭섭하고 실망스러워하던 남편의 눈빛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다. 왜 날 떼놓고 가려 해? 왜, 왜, 왜…….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다. 다급하게 남편이 물었다.

"같이 갈까?"

거절하는데 1초도 안 걸렸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가급적 빨리 다녀와야 했으므로.

"아니. 혼자 갔다 올게."

"....."

그런데 저 표정은 뭐지? 몹시도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얼굴이 아닌가. 그러한 잠시, 남편이 풀죽은 목소리로 묻는다.

"왜 날 떼놓고 가려고 해?"

당황하여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묻지 못했다. 사실은 그날만 그랬던 건 아니다. 바빴다, 늘.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물론, 아이들 손잡고 한들거리며 장을 보는 일도 드물었다. 장 보러 다닐 시간도 마땅치 않아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을 봤었다. 빠진 것이 있을 때나 당장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만 시장에 갔기 때문에 크게 무거울 것도 없었다. 습관처럼 혼자 다녔고 원체 재빨라 걸음걸음 바람 소리가 났다. 느닷없이 왜 그런 말을 하지? 곰곰 생각했다. 필요한 것들을 사 들고 집으로 오는데 불현듯 생각이 났다. 아, 이 남자가 외롭구나.

남편 나이 마흔일곱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더불어 누려야 하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칠 때가 많았다. 남편과는 더했다.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많았지만 거듭되는 남편의 실패로 삶을 잣는 물레가 몹시 분망했다. 그 점에 대해 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한다고 믿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수다를 떨거나 여느 여자들처럼 즐겁게 노느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나 또한 당당했다. 남편이 그 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외롭다는 걸 알고 나니 앞으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금세 그려졌다.

그때 이후로 난 남편을 떼놓지 않았다. 어디든 동반하려고 한다. 수시로 "같이 갈까?"를 물어주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여서 곤란한 자리가 아니라면 늘 함께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다. "요이~땅"하면 곧장 달려 나올 채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갈 때면 모든 짐을 남편이 도맡는데 그것도 기껍다. 아프다고 드러누웠다가도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후다닥 털고 일어선다.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그저 즐겁고 기쁜 것이다.

마흔일곱일 수도 있고 쉰일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그날이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

남자 나이 마흔 후반, 혹은 쉰 즈음, 남자가 말랑말랑해질 때.

여자 나이 마흔 후반, 혹은 쉰 즈음

그 나이의 여자들은 대부분 혼자이고 싶어 한다. 아이들 키우느라 몸서리쳤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며 아내를 부르는 남편의 소리도 지겨워질 수 있는 나이다. 다 떼놓고 나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질펀하게 놀아도 보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도 보고 싶을 나이다. 그런데 젊은 날, 밖에서 즐거웠던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봤던 것들이 크게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 바깥생활에 충실하느라 놓쳤던

소중한 행복을 되찾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내 가정밖에 없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아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반기지 않는다. 설령 남편을 두고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더러는 함께하는 일에 익숙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행복하리라 굳게 믿어 결혼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각자 섬이 되어 외롭다. 아예 방을 따로 쓰거나 통장 관리를 각자 하는 경우도 있고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다. 물론 다들 곡절은 있다. 나름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의 손을 놓아버리고 서로 다른 길에서 정처 없이 헤맨다.

마흔일곱, 혹은 쉰 즈음, 마음이 말랑해진 남자는 다시금 돌파구를 찾는다. 가정으로 돌아와 막연하지만, 무엇이든 가족과 함께해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를 반기지 않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아내는 남편의 귀환이 진심으로 안 반갑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 여편네나 아줌마가 아니라 황후가 될 수 있는 기회, 죽는 날까지 남편이 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기회, '남 편'이 아니라 온전히 '내 편' 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인간' 만나 내 인생 깡통처럼 우그러졌다고 한탄해 봤자 나만 불행해진다. '그 인간' 만나지 않았더라면 팔자가 꽃처럼 폈을 것 같지만, 더 고약한 인간 만나 모질게 고생하며 살았을지 누가 알겠는가. 과거는 묻지 마시라. 현시점에서 어찌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할 날이 40년, 50년이라면 서로 원수처럼 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가.

뒷광대 와 앞광대

글 ● 마포평생학습관 국악사랑 '휘모리' 강인철

지난 9월 오랜만에 무대에 섰다. 생각해 보니 가끔씩 연주를 하긴 했으나 그건 시나브로 한 것이었지 제대로 해보려 애쓴 건 아니었다. 진중하게 마음 다지며 공연한 게 2012년 9월 여의도에서였으니 이러구러 3년만인 것 같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십여 년 이상을 애지중지(愛之重之) 사랑한 국악(國樂)이었는데 예술의 세계 역시 '풀잎에 이슬' 같지만은 아님을 겪으면서 심란한 마음이 뒤숭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전국 평생 교육박람회' 겸 제11회 '서울 평생학습축제'가 강남 코엑스 3층 C홀에서 3일간 열렸고, 그 개막축하 공연에 초청된 자리였다. K 아나운서의 사회로 정부 부처인사와 교육청을 비롯한 기관장 등 내빈이 소개되고 개막선언에 이은 축하공연이었다.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공연무대로 쏟아졌다. 상(上)장구와 수(秀)북에게 눈길을 주었다. 연습 때 주문한 대로 평소보다 빠르고 박진감 있게 점고를 울리고 아주 조용히 웃다리7채 본 가락으로 춘정(春情)을 못 이겨 잠 못 드는 이에게 님이 다가와 살며시 안기듯 서막을 내고, 쩍쩍이를 중심으로 마당3채를 섞어 흥을 돋우며 천길 벼랑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가락을 달구었다.

맨 앞자리의 조희연 교육감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시 잔잔한 다듬이 가락으로 이슬방울이 햇살에 녹아내

리듯 동글동글 박(拍)을 굴리고 '그랑 그랑 객개~ 갱그라 객개~' 맺이를 향하여 상부쇠 짝드림 놀이로 천둥 벼락이 한꺼번에 울부짖어 태산(太山)이 무너지듯 있는 힘껏 빠르고 강하고 신명 나게 조이고 풀기를 거듭했다. 숨이 멎을 듯 끌어올렸더니 관중석에서 공명(共鳴)의 박수가 터지고 관장님들이 환호를 보내 주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평생 교육은 우리들의 소망~, 부지런히 공부하여 나라 사랑 하세~" 아리랑의 개사(改辭)곡으로 커튼콜까지 마쳤다. 박수와 환호의 객석을 향해 풍(風).우(雨).운(雲).뇌(雷) 4신(四神)의 감동을 징. 장구. 북. 쇠의 울림으로 풀어냈던 8분간의 연주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 아니 80분은 된 듯 까마득했다.

본디 예술(藝術)이란 내가 받은 감동을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면(內面)의 춤사위이자 영혼의 천둥소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절묘한 장단이 흐르고 있다. 판소리의 안숙선, 마에스트로 정명훈, 사물놀이 김덕수 등 명인들이 가시덤불 헤쳐 온 고난의 여정은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도 많이 닮았다. 절대 난관(難關)의 늪에 빠졌을 때도 그 한(恨)을 흥으로 바꾸려 무던히 애써온 그들의 뒷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

무대 인사를 두 번이나 하고 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막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을 회원들의 표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목마르시지요?" 하며 건네준 물 한잔에 사랑이 넘쳤다. 그들은 국악사랑 '휘모리'의 뒷광대이다.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무대 위 연주자들을 빛나게 하는 후배 스텝들을 우리는 '뒷광대'라 부른다. 일반 관중들은 무대의 '앞광대' 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그들을 뒷받침하며 돕고 있는 뒷광대의 수고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무대 뒤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면 그 공연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도 그들은 바쁜 일상을 쪼개어 무거운 쇳덩이(징)를 머리에 이어 나르고 조심조심 장구를 가슴으로 안아 옮겼다. 선배들이 복색(服色)을 갖춰 입을 땐 옷매무시를 바로 잡아주고 분장(粉粧)이 지워질세라 부채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많은 회원들이 뒷광대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 한 줄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다.

앞광대라고 스포트라이트에 박수만 받으란 법은 없다. 인생 만사(萬事)가 결코 일방적이지 않음을 이르고 있는 에스키모의 일화를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먼 옛날 얼음집에 살던 에스키모족 노인들은 생을 다 했다고 느낄 때, 이글루를 떠나 북극곰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거기서 그 먹이가 됨으로 삶을 마쳤다고 한다. 남은 가족에게 짐을 덜어 주고 훗날 그곰이 내 후손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다. 앞광대이었던 그가 노년에 이르러 오직 가족을 위한 마지막 뒷광대의 헌신(獻身)으로 생을 바친 거룩한 모습에 전율마저 느꼈던 기억이 새롭다.

삼라만상에 위아래가 있고, 앞뒤가 분명함은 당연한 이치(理致)이다. 특히 예술인 경우 '앞광대'는 기예(技藝) 본연의 수련에 결코 게을러선 아니 되며, '뒷광대'는 이를 본받아 묵묵히 배우는 겸손함에 소홀해선 안 된다.

앞광대와 뒷광대가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함으로서 문화의 향기를 유감없이 누릴 수 있음은 물론 모든 이들이 행복의 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해보세요.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 모임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소식과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원님과 지역 사무국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SNS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활동 이야기와 법정 스님의 좋은 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먹지마 건강법, 단계별로 실천하면 쉽다!

1단계 | 인스턴트식품을 끊어 준다.

오염된 음식을 먹지 말자는 먹지마 건강법은 채식 요법이라기보다는 인스턴트식품을 끊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친환경 육류와 유가공품은 약간 먹어도 되지만 인공첨가물이 넘치는 인스턴트식품은 완전히 끊으면 된다.

2단계 | 유가공품을 끊으면 된다.

인스턴트식품의 차단으로 몸이 가벼워지게 된 것이라면 우유, 달걀,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의 유가공품을 먹지 않는다.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은 2단계를 반드시 실천한다.

3단계 | 육류를 끊는다.

유가공품을 끊는데 성공한 경우라면 채식 단계로 접어든다. 우유, 달걀 같은 육류 부산물의 경우 육류보다 오염이 심하므로 먹지마 건강법에서는 육류보다 유가공품을 먼저 차단한다.

4단계 | 밀가루를 끊도록 한다.

채식해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이다. 3단계로도 효과가 없다면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한다.

5단계 | 곡물, 채소, 과일을 친환경 농산물로 먹는다.

농약, 제초제, 호르몬으로 오염되고 마는 곡물,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바꾼다.

– 손영기 한의사의 먹지마 건강법 중에서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봉사자와 함께하는 숲기행

- **일정** : 11월 7일(첫째 토)
- **대상** :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자
- **장소** : 강원영동지역의자연환경과문화유적 강릉 안인삼거리–괘방산 숲기행–등명 낙가사 참배
- **참가비** : 20,000원(봉사자에 한해서)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입금계좌** :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향기롭게)

묘희원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묘희원 방문 봉사팀은 지난 10월 4일 '맑고 향기롭게 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풍성한 가을 정(精)원 파티'를 묘희원, 불이원, 상락원 시설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보호자, 봉사자 총 180여 명이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마련하여 음식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시설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기분전환의 기회와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봉사팀은 10월 12일 '맑고 향기롭게 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을 기획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나눔 행사를 11월 8일 진행합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방문 봉사팀은 시설 어르신을 모시고 민요와 풍물공연을 진행하고 어르신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소 생활관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통하여 웃음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무료 강좌를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 **강사** : 김영숙(의류 리폼 봉사자)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 **자격** : 회원, 봉사자, 신도
- **인원** : 최대 5명의 소모임으로 2개월 과정 (8차 진행 예정)
- **장소** : 길상사 內 세계일화실
- **내용** : 참가자가 안 입는 옷(청바지, 남방 등)을 가져와 2개월 동안 손바느질, 재봉틀을

활용한 리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여 각자 가정에서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반찬 나눔 조리 봉사활동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쓱쓱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봉사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상황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29일(넷째 일)/길상사 설법전/ 김영동 국악음악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목, 금 요일(5,6,19,20,26,2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김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2,9,16,23,30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4일)/오후 1시 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21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첫째, 마지막 일요일 / 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4,11,18,25일(수)오후 1시 30분(샴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 : 25일(넷째 일)/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한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 741 – 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밑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11월 7일(토) 오후 7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1월 14일(토) 오후 8시 30분
  ~ 11월 15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1월 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1월 12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1월 2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수능입시기도 천도재
- 일시 : 11월 1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2016 대입수능 특별기도
- 일시 : 11월 12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 설법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18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결제
- 일시 : 11월 2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주말 선 수련회
- 234기 : 11월 21일 ~ 10월 22일
- 235기 : 11월 28일 ~ 10월 29일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5만원
-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입금 선착순 마감)
  교무실(02.3672-0036)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보리회, 천수회(템플), 청년회, 합창단, 새신도봉사회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길상사 창건18주년 기념법회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지기도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2월 5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12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2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2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2015년「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함께 해요!

김장 나눔 개요

- **일시** : 12월 2일(수), 3일(목) 09:30 ~ 16:00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 길상사 주차장
- **나눔대상자** : 홀로어르신·장애인 및 복지시설 1,000여 가구당 10kg 나눔

자원봉사 활동 및 모집인원 안내

- **내용** : 12월 2일(수) – 천막 설치, 재료 및 양념 준비
  12월 3일(목) – 배춧속 넣기, 포장, 전달, 정리
- **참여대상** : 회원, 길상사 신도,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자(주부, 외국인, 학생), 군인, 기업체 등 총 200여명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혜택** : 점심 제공,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봉사 참여 및 인원수를 미리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체, 단체 후원 및 참여도 기다립니다.

※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봉사자 및 길상사 방문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참 및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www.clean94.or.kr
- 김장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2015년 11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49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02)741-4696